

# 만루포 맞고도... 임기영 '이유있는 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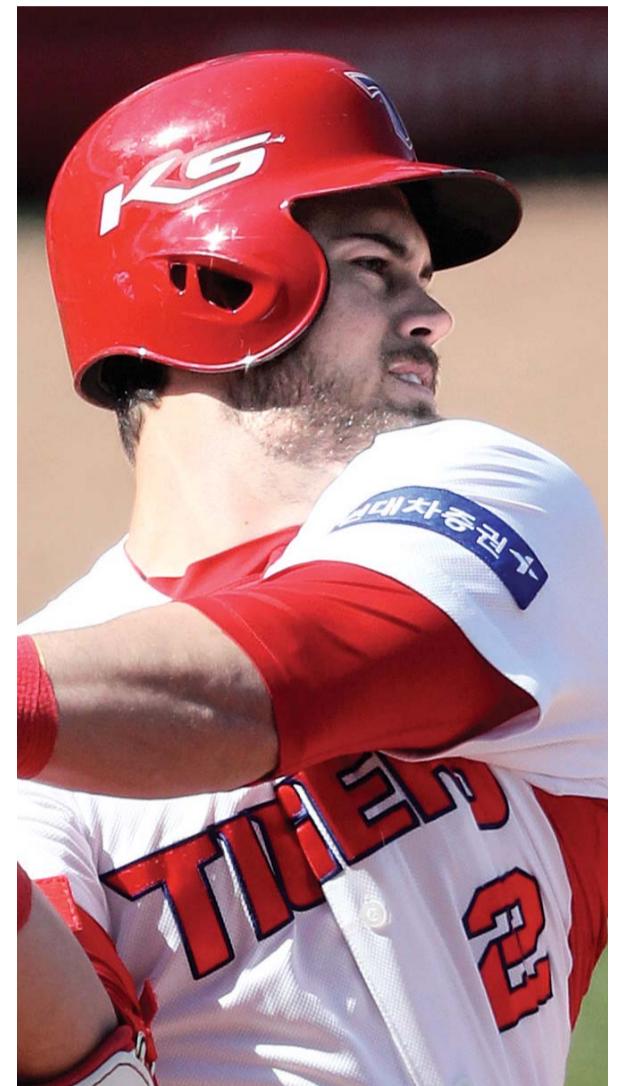
임기영



문경찬



브룩스



터커

## KIA 세 번째 흥백전

임기영, 4이닝 4실점 비자책  
백런스·직구의 힘·스피드 상승  
2년의 부진 탈출 신호탄

터커 만루포...장타력 기대감  
브룩스, 첫 실전 4이닝 무실점

잘 던지고 잘 쳤다.  
KIA 타이거즈가 2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세 번째 흥백전을 치렀다.  
외국인 선수 터커가 임기영을 상대로 만루 홈런을 뽑아내면서 백팀의 7-2 승리를 이끌었다.  
터커의 만루포가 나온 3회가 하이라이트였다.  
'4-5선발 경쟁' 중인 임기영의 세 번째 이닝. 스프링캠프에서 이만우와 함께 선발 경쟁에서 가장 앞선 모습을 보였던 임기영은 앞선 2이닝은 1볼넷 2탈삼진으로 깔끔하게 처리했다.

3회 임기영이 첫 타자 김주찬을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한 뒤 조구에 한승택에게 우전 안타를 맞았다.  
그리고 유격수 황운호의 실책으로 무사 1·2루, 이번에는 최원준의 빗맞은 타구가 중견수 앞에 떨어지면서 베이스가 가득 찼다.  
임기영은 김선빈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급한 불은 꺾지만 터커와 승부에서 연달아 낮은 볼을 던졌다. 그리고 카운트를 잡기 위해 몸쪽으로 꺾친 직구를 구사했지만 터커의 방망이가 움직였고, 이어 공은 우측 담장을 넘어가면서 만루홈런이 됐다.  
임기영은 투구수 제한으로 터커와 승부를 끝으로 3회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다시 4회 마운드에 올라 나지완과 유민상을 초구 땅볼로 처리했고, 장영석도 3루수 땅볼로 돌려세우면서 흥백전 첫 등판을 마무리했다.  
만루홈런은 맞았지만, 경기가 끝난 뒤 임기영의 표정은 밝았다. 임기영의 첫 등판 결과는 4이닝 3피안타(1피홈런) 1볼넷 3탈삼진 4실점. 야수 실책이 없었다면 기록되지 않을 점수였기에 모두 비자책점이 됐다.  
임기영의 경기 총평도 "좋았던 것 같다"였다.

임기영은 "백런스도 좋고 스피드도 작년보다 나온 것 같아서 괜찮다. 터커한테 맞은 것 빼고는 좋았다"며 "홈런 맞았지만 (포수) 용환이 형도 그렇고 심판님도 공이 잘 들어왔다고 했다. 터커가 잘 친 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2년의 부진 탈출을 위해 임기영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구에 힘과 스피드가 붙은 게 고무적이다.  
임기영은 "직구가 좋아져서 변화구를 많이 던졌다"며 "1군 우리팀 상대로 던지는 거라서 더 집중해서 던졌다. 던지면서 많이 물어보고 좋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로운 외국인 선수 애런 브룩스는 백팀 선발로 나와 챔피언스필드에서 첫 실전 피칭을 소화했다.  
최고 150km 직구를 구사한 브룩스는 4이닝 2피안타 1볼넷 3탈삼진 무실점으로 좋은 페이스를 이어갔다.  
마무리 문경찬은 두 경기 연속 피홈런을 기록했다.  
9회말 마운드에 오른 문경찬은 2사 1루에서 김규성에게 우월투런포를 내줬다. 문경찬은 지난 20일 경기에서는 김호령에게 한방을 허용했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핫 플레이어 '터커'

### "강한 몸 만족... 장타 자신감 붙었다"

몸 키운 프레스턴 터커가 장타력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터커는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의 흥백전에서 만루포를 터트리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0-0으로 맞선 3회말 2사 만루에서 타석에 선 터커는 사이드업 임기영의 낮은 볼 두 개를 지켜본 뒤 몸쪽 직구를 잡아당겨 우측 담장을 넘겼다.  
캠프에서 2개의 홈런을 기록했던 터커는 흥백전 세 경기 만에 다시 홈런포를 가동하며 올 시즌 전망을 밝혔다.  
터커는 "우리한 카운트에서 타격을 했다. 패스트볼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강하게 치려는 생각으로 배트를 냈는데 좋은 스윙으로 연결되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스프링캠프에서의 좋은 리듬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해플베이커의 교체 선수로 KBO리그에 온 터커는 지난해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체

제적으로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해가고 있다.  
터커는 "기본 좋게 연습경기를 하고 있다. 스프링캠프는 부상 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게 감독님께서 선수들이 시즌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셨다"며 "지난해에는 중간에 들어와서 리그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시즌 막바지에는 피곤함을 많이 느꼈다. 전체 시즌에서 9월까지 외야수로 나가서 한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맞춰 몸상태에 신경 쓰면서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강한 몸과 함께 강한 타구가 KIA가 터커에게 기대하는 부분이다. 터커 역시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바로 강한 타구, 장타이다.  
"시즌이 끝난 뒤 1주일 쉬고 꾸준히 몸을 만들었다"며 벌크업에 관해 이야기한 터커는 "시즌을 잘 치를 수 있는 강한 몸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비시즌을 보냈다. 홈런이든 아니든 타석에 나가면 강한 타구를 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김광현, 선발 입지 '흔들'

美 세인트루이스 지역지 "롱릴리프나 선발 대체 적합"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개막 연기가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게 약재로 작용하고 있다.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무실점 역투를 이어가던 김광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범경기와 단체 훈련이 중단되면서 플로리다 루저더 스타디움에 남아 외롭게 훈련 중이다.  
여기에 선발 로테이션 진입도 불투명해졌다.  
지역 신문인 세인트루이스 지역지인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23일(한국시간) "김광현과 다니엘 폰스터리언은 롱릴리프나 뛰다가 선발 로테이션에 이상이 생기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상이 없다면 잭 플래허티,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다코타 허드슨, 마일스 마이클러스로 이어지는 선발진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썼다.

2년 보장 800만달러에 세인트루이스와 계약하며 미국 무대 도전을 시작한 김광현은 시범경기에서 8이닝 동안 실점 없이 5안타만 내주고 삼진 11개를 잡는 호투를 펼쳤다.  
마르티네스가 날뛰기 피칭을 하고, 마이클러스가 팔꿈치 통증으로 훈련을 중단하면서 김광현의 선발 진입이 유력해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메이저리그가 개막을 5월 중순 이후로 연기했고, 마이클러스는 회복할 시간을 벌었다.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선발 경험이 있는 마르티네스가 정규시즌 개막이 연기되는 변수에 상대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선발 경쟁은 시즌 중에도 이어진다. 김광현은 짧은 시간에 '빅리거'로 인정받았다.  
중간 계투로 시즌 개막을 맞이해도 선발 등판 기회는 얻을 수 있다.  
/연합뉴스



## 미니투어로 발길 돌리는 美 프로골프

코로나 확산에 투어 중단... 선수들 실전 감각 유지 위해 출전 줄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는 전면 중단됐지만, 미니투어는 성업 중이다.  
미니투어는 주회자가 상금과 운영비를 대는 PGA투어나 LPGA투어와 달리 참가자가 낸 참가비로 상금과 운영비를 충당한다.  
PGA투어나 LPGA투어에서 밀려났거나, 갈 실력이 되지 않는 선수, 그리고 PGA투어나 LPGA투어 진출을 꿈꾸는 선수들이 출전한다.  
미국 애리조나 지역에서 주로 열리는 여자 캐터스 투어와 남자 아웃로 투어는 올해 들어 예정된 대회를 하나도 빠짐없이 치렀다.  
PGA투어와 LPGA투어가 3월부터 문을 닫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평소에는 언론의 관심이 아니었던 미니투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캐터스 투어는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 카롤라 시간다(스페인) 등

LPGA투어 정상급 선수가 출전해서 화제가 됐다.  
시간다는 7차 대회에서 우승했고, 노르드크비스트는 10차 대회 정상에 올랐다.  
시간다는 "실전 감각을 유지하려고 출전했다"고 말했다.  
노르드크비스트가 우승한 10차 대회는 출전 선수를 제한해 27명만 코스에 나섰다.  
캐터스 투어 운영 책임자 마이크 브라운은 "보건 당국의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수들에게 대회에 나오라고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면서 "다들 원해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6개 대회를 차질없이 치른 남자 미니투어 아웃로 투어는 3월31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17번째 대회 출전 신청을 받는 중이다.  
20일 끝난 16차 대회에서는 PGA 라틴아메리카 투어에서 뛰는 제러드 뫼트와(캐나다)가 최종 라운드에서 59타를 치고도 연장전 끝에 준우승에 그쳐 뉴스를 탔다.  
/연합뉴스